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1)

히브리서 11:1~3 / 하용조 목사

I. 서론

II. 본론

1. 하나님으로 부터 난 은혜
2. 믿음의 혼동
3.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III. 결론

I. 서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보물창고와 같아서 이 장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믿음은 어떤 성격이냐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장 1절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이 본질의 문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성격을 공부해야 합니다.

II. 본론

1.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혜

이 믿음이 뭐냐 하는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밥상을 아들에게 주어야 아들이 먹고 안 먹고 문제는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밥도 안 주었는데 아들이 먹고 안먹고 할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됐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믿음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봉사를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앓은뱅이를 고쳐주셨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말할 수 없는 각색 병든 자와 미치광이들과 그리고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볼 때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쳐주시든지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심어주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후에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불쌍해서 천장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주위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라도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그냥 네 병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의 소경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네 병이 나올지어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보고 싶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소경이 눈을 뜹니다. 당신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만져보고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그 말 자체는 신뢰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는 내용이 뭐냐 사람들은 요즘에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들을 보면 자기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가 발견했던 진리입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 믿음의 혼동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 믿음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다 섞어놔서 혼돈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하는 정의를 내려야 할

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단 여기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믿음을 확장시키면 우리는 나중에 굉장히 어두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컨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최면이나 자기 신념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철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철학과 사회사상과 이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민중 신학이라든지, 이런 세속신학 같은 것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비슷하게 접붙여 와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도 낙관도 혁명도 믿음은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아주 종교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게 믿음을 혼돈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과 로버트 솔러를 비롯해서 그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환상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듯 하지만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 버리고 맙니다. 이건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적인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이 뭐냐 하는 얘기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오면서 이미 다 공부가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왔던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1장부터 10장을 공부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해집니다. 내세가 확실해집니다. 구원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안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핍박과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불합리한 고난이 그에게 닥쳐올지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안에서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즉각적으로 응답을 못 받았지만 오래 기다리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은 쉽습니다. 시시한 것은 즉각즉각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는 오래 기다리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완전히 주파수가 딱 하고 맞으면 기적이 그 즉시 일어납니다.

암이 낫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하는 불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불이 떨어지고 죄가 떠나고 귀신이 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줄로 압니다. 방언 안하면 믿음이 없는 줄로 압니다. 불을 안받으면 믿음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 출발에 불과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진짜 믿음은 당신이 병들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겪고 환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러한 각도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봐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바란다고 하는 것을 좀더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상상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 바람은 나로부터 온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온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이요, 철학이요, 자기 확신이요, 최면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참된 추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된 이상과 참된 소원이 그 사람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게 됩니

다.

땅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한 이후로 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위의 것들, 영원한 것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순간으로부터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진리를 그는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내세, 능력, 사랑, 용서, 평화, 기쁨, 자유 이런 영원한 것들을 그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는 그런 영원한 것들을 오늘 내 것으로 현재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실상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아래에서 받쳐준다, 기초, 근거, 확신 등의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천년동안 그 많은 역사의 와중 속에서 흔들릴 듯, 깨질 듯, 없어질 듯 하였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이성과 맞지 않습니다. 형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합리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상식과 합리 이하는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 넘습니다.

그 내용은 믿을 수 없지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내용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전부 가능해 지고, 없던 것이 보이게 되고 안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시간을 단축하는 힘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믿음은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당겨서 보는 눈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상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적인 동기로 잘못 바라보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보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은 본질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 믿음은 지금 그 사람이 보지는 못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마음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망망대해 지평선을 만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럼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야 저기 섬이 있다” 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봤고 한 사람은 그냥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가지고 본 사람은 저 끝에 섬이 있는 것을 그가 망원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망원경으로 보

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연인의 눈에는 전혀 안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저 깊은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시야에 섬이 있는 것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천국을, 미래를 보지 못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육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믿어집니다.

우리 중에서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만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맛본 자는 없으나 영생을 맛본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III. 결론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은 자연인의 눈으로는 또 현실적인 시야로는 그것이 희미하고 불안하고 영똥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실상이요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육체와 현실의 모든 조건을 뛰어 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의 지평선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의지를 굳게 해 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읽은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처음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과 그 많은 약속들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도중에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집에 시집보내신 것은 그 남편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문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문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고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면 오늘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봤자 고생만 합니다. 금식하면 배만 고프니다. 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들의 영혼과 지성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부터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